

품격있게, 감미롭게...클래식 선율 속으로

'전국 노래자랑' 새 MC 김신영 "늘 배우는 자세로 국민과 호흡"

광주문예회관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11월까지 다섯번 공연
9월5일 첫번째 무대...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무반주 리사이틀

더위가 한풀 꺾인 요즘 실내악 공연장을 찾아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 속으로 빠져보는 걸 어떨까. 광주문예회관 포시즌의 '실내악 시리즈' 공연은 섬세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다. 적은 인원으로 연주하는 기악합주곡은 관객과 연주자가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라 할 수 있다.



김동현

올해 포시즌 2022년 실내악 시리즈는 '하나부터 다섯'이라는 주제로 클래식 음악의 특성과 매력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그 첫번째 무대도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 무반주 리사이틀을 선보인다. 오는 9월 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 김동현은 모든 레퍼토리를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으로 선보인다.

김동현은 2016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는 만 17세의 나이로 준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2019년 세계 3대 콩쿠르로 손꼽히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만 19세의 나이로 3위를 차지했다. 이날 공연은 이자리 '바이올린 소나타 2번 강박'으로 시작해 J.S.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중 사콘느', 이자리 '바이올린 소나타 5번 전원' 그리고 헨데미트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이자리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발라드' 연주가 이어진다.



'트리오 오원'

전석 3만원 (8세 이상 관람)이며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에서 통해 예매 가능하다. 두번째 시리즈는 9월 26일 2인 음악 가극 '아파트'다. 바리톤 김동현과 피아니스트 김가람이 '풍자 가극'인 '아파트'를 통해 한국인에게 삶의 적도가 돼 버린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노래한다. '실내악 시리즈 3' 무대(10월 17일)는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슈트로, 바이올리니스트 샤를리에로, 첼리스트 양성원으로 구성된 '트리오 오원'이 나선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원 트리오의 이미 솔리스트로 유럽 무대에서 세계적인 커리어를 쌓은 세명의 연주자의 특별한 하모니를 선보인다.

네번째 시리즈는 이색적인 어쿠스틱과 일렉 사운드가 만나 어울어지는 사운드를 선보이는 '물도 파르텐'이다. 더블베이스 성민제, 베이스 최진배, 피아노 이한얼, 클라리넷 장종선이 바흐의 대작 중 하나인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을 재해석해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쉽고 즐거운 음악을 선사한다. 마지막 시리즈는 오는 11월 21일 뷔에르 앙상블의 무대다. 클라리넷 조성호, 플루트 유지홍, 오보에 고관수, 바순 이은호, 호른 주홍진 다섯 명의 차세대 목관 솔리스트들이 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비제의 '카르멘 판타지' 등을 선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BS 1TV '전국노래자랑' 새 MC를 맡은 김신영(사진)이 출연자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임자인 고(故) 송해 선생이 평소 강조해 온 점을 이어받겠다는 뜻이다. 김신영은 30일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송해를 이어 '전국노래자랑' 새 MC를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김신영은 "송해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며 "전국노래자랑"은 그동안 (방송에) 나와준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흡수돼 배워가는 것 자체가 MC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웃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호흡대로 가겠다"며 "전국 팔도에 계신 많은 분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향토 색깔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BS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국노래자랑'은 송해가 1988년 5월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진행을 맡아 전국을 누비며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 왔다. 누가 후임 MC를 맡을지 엄청난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했다. 이상벽, 이상용, 임백천, 이택림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그동안 대체 MC로 송해의 빈자리를 채워온 작곡가 이호섭과 임수민이나 운서가 계속 진행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신영은 '송해 후계자'로 언급되던 쟁쟁한 선배 방송인들을 제치고 자신이 새 MC로 발탁된 이유에 대해 "전국 어디에 갔다 놓아도 있을 법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접근하는데) 문턱이 낮아, 편하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장난질 수도 있다"며 "희극인 20년 차로 행사,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동요대회 등을 많이 진행했다. 동네 손녀나 동생, 이모처럼 편안한 사람이라서 선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신영은 '전국노래자랑' MC를 맡게 된 것은 "가문의 영광", "'오복'(五福)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TV 채널을 돌리던 시대, 주말 아침에 누워있으면 '만따라 만따라'하는 ('전국노래자랑') 음악이 들려왔다. 프로그램과 같이



성장했는데 (제가 MC를 맡게 돼) 정말 몽롱하고, 울컥한다"며 "제 건강과 국민 여러분이 허락하는 한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못 먹는 음식도 없어서 전국 팔도에서 여러분들이 힘겹게 농사지으신 것도 아주 맛있게 먹겠다.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2003년 SBS 개그콘서트로 데뷔한 김신영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를 맡는 등 진행자로서도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또 여성 개그우먼들로 구성된 그룹 '셀럽과 이브'와 부캐(부 캐릭터)인 '둘째 이모 김다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박찬욱 감독 영화 '헤어질 결심'에도 출연하는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IT가 미술과 디지털 아트에 끼치는 영향'

지뎐, 9월1일 이상미 이상아트대표 강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뎐/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강좌 '뉴미디어아트에서 NFT까지' 세 번째 강의를 열린다.

9월1일 오후 2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에서는 이상미(이상아트 대표·사진)가 'IT가 미술과 디지털 아트에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강의에서 이상미 대표는 NFT의 개념, 국내외 거래소 현황을 언급하고, NFT와 디지털아트의 연관성 및 NFT가 미술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이로 인한 현재 미술시장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강연한다. 이상미 대표는 프랑스 파리 고등미술연구원 예술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경영학과에서 수학하고 파리 고등실천연구원에서도 양예술사학과 고고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에서도 미학으로 박사과정을 밟았다. 전시기획사인 이상아트(주) 대표이사이자 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장으로서는 예술감독, 전시기획자, 칼럼니스트, 강연자 등의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송강호, 데뷔 31년 만에 첫 드라마... '삼식이 삼촌' 출연

배우 송강호가 데뷔 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마 시리즈에 진출한다. 송강호는 1960년대 초 격동기를 살아낸 두 남자의 욕망과 브로맨스를 다룬 10부작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서 주인공 삼식이 역을 맡는다. 영화 '1승', '거미집'에서 송강호와 호흡을 맞췄던 신현식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송강호는 1991년 연극 '최선생'으로 처음 데뷔했고, 19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 단역을 맡은 이후 줄곧 영화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그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살인의 추억', '박지', '설국열차', '관상', '사도' 등에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입증해왔고, '괴물', '변호인', '택시운전사', '기생충' 등은 관객 수 1천만 명을 넘기도 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